

蝸牛角上爭...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다니!

작가 에세이

기세규

광주유학대학교수
漢詩 시인



개인이나 국가, 일반 사회에서 사소한 다툼과 큰 분쟁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사 현실이다. 외부에서 말하기를 가장 도덕적이고 연륜이 쌓인 인격자들의 단체라 일컬어지고 있는 곳에서조차 내부의 실상을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다툼과 내부 분열로 인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단언하건데 명예욕이다. 명예욕에 온통 마음이 쏠리게 되다 보니 공맹(孔孟)께서 그토록 외치셨던 서(恕)와 양보는 찾아 볼 길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인간의 삼대 욕망은 식욕(또는 재물욕), 색욕, 명예욕이라고 한다. 이중에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명예욕이란 말이 있다. 물론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명예욕은 무엇인가. 명예는 도덕적 또는 인격적으로 두루 인정받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적이나 성과 등을 나타내는 말이니 명예욕은 이러한 욕심을 말한다. 곧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때에 따라 그 열망은 재물욕보다 강할 수도 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남자들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많으니 성욕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두루

보편적인 욕망은 단연 명예욕(권력욕)임이 틀림없다.

불가의 이야기로 석가모니의 성도 과정을 그린 팔상도의 6번째가 수하량마상(樹下降魔相)인데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 마왕이 나타나 방해했다. 세 팔을 보내 유혹기도 하고 폭력으로 협박하기도 하였지만 실패하자 끝으로 천룡성왕을 시켜주겠다는 권력욕을 자극했지만 역시 실패했다는 내용을 그린 그림이다. 이는 색욕이나

“인생이란 흥연 번쩍이는 부싷돌 불 같이 순간이고 세상일이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사소한 다툼에 불과한 것. 명예욕과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를 상하게 하는 행위는 새해엔 버리자”

두려움 보다 명예욕을 떨쳐 내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음이다. 기독교 성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 예수가 세례를 받은 후에 40일 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나타나 빵과 두려움과 명예욕으로 예수를 유혹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 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한 장면(마태복음 4장)이 그것이다. 사탄은 명예욕이야말로 예수도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 틀림없다.

이런 명예욕(권력욕)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는 도중 다양한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시련이나 파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혹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이 가운데 괴로움과 즐거움이 교차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아주 사소한 일에 순간 자칫 잘못 선택을 하여 인생 전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 별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나 실제로 별게 아닌 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때로는 겨주는 것도 필요하다. 대단한 명예로 보였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고 보면 너무나 허망하고 하찮은 일들이었음이 비일비재하니 더욱 그렇다.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장자(莊子) 잡편 중 직양편을 인용해 아래와 같이 읊었다. 蝸牛角上爭何事(와우각상쟁하사) 달팽이 뿔 위에서 무슨 일로 다투는가? 石火光中寄此身(석화광중기차신) 부싷돌 불빛 속에 이 몸 맡긴 짧은 인생이라. 와우각상지쟁은 와각지쟁(蝸角之爭)이라고도 하며 '세상일이란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이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곧 달팽이의 머리 위에 난 촉각끼리의 싸움이란 말로써 우주에서 보면 좁디 좁은 인간 세상에서의 부질없는 싸움, 애써 다투어 보았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쓸데없는 싸움을 말한다.

백낙천은 역사적 사실 속의 우화를 빌어 보잘것없는 일로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음을 말했다. 인생이란 흥연 번쩍이는 부싷돌 불 같이 순간인 것을 인식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널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임에도 명예욕 때문에 사소한 이해관계로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를 상하게 하고 주변까지 온통 시끄럽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 이제 한해의 시작이다. 사소한 일에, 사소한 명예욕에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조합의 미래'를 위하여 '돈선거'는 이제 그만

발언대

김종현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오는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일이 30여 일 남은 상황에서 금품 및 음식물을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등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고 혼탁하다는 기사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치르는 선거이지만, 전남의 경우에는 지역 사람의 대다수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조합장선거 분위기가 벌써부터 과열되고 혼탁한 이유는 오래전부터 조합장선거에서 고질적인 '돈선거' 관행이 있었고, 비교적 선거인 수가 적어서 서로를 잘 알고 조합원들 간에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있어 금품, 음식물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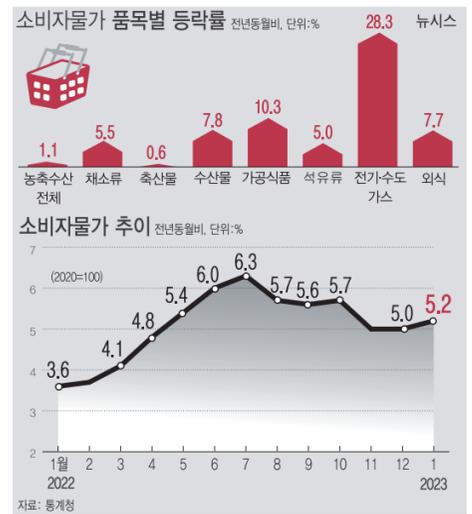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에 금품, 음식물 등이 개입되는 순간 후보자는 조합의

정책과 비전, 더 나아가 조합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선거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돈선거'를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전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이 조합의 미래를 절실히 생각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돈선거'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단속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하나인 '돈선거'에 관하여 단속역량을 더욱더 집중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돈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대체적으로 은밀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 그래서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의 관심과 더불어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려는 입후보 예정자의 마음가짐 또한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돈선거' 근절과 공명선거에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하겠다. 그래야 이번 조합장선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조합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프로 보는 세상



사진으로 보는 세상



1일(현지시간) 영국 윌트셔의 솔즈베리 평원에서 훈련 중이던 우크라이나 여군 병사가 조국 얘기를 하던 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호주군이 영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신병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날 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 페니 윙 호주 외교장관 등이 훈련장을 찾았다. 윌트셔=AP/뉴시스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관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석 (키보드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교섭/유령
2관	바빌론/교섭
3관	아바타: 물의 길
4관	상견니/돌핀보이
5관	유령
6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7관	바빌론/유령
8관	영웅/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유령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